

시대 비추는 거울에서 자아표현 수단으로

미술 속에 나타난 몸

노성두 | 미술사학자 · 서울대 미학과 강사

고대미술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사상을 비추는 거울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인간 본성의 양면성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고, 몸을 자아표현 수단으로 바라보게 했다. 인간과 우주를 만든 큰 원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하나의 생성원리로 몸을 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화가가 사람 머리에 말 모가지지를 붙여놓고 몸통에는 동네방네 주워 읽은 지식으로 때깔 좋은 깃털을 붙여두거나, 또 아랫도리는 흉측한 물고기 꼬리가 났는데 윗몸은 어여쁜 여인을 그려놓았다고 칩시다.”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학》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올바른 변론술을 설명하다가 똥판지같이 미술의 사례를 갖다붙인 이 대목은 고대 미술 이론이 어떤 건지 밝혀보려는 근대 이후의 인문학자들에게 꽤 난처한 고심거리였다. 이론과 실제가 영 꼭지가 안 들어맞는 것이었다.

인간과 우주의 생성원리로 몸 해석해

아마 호라티우스의 속뜻은, 병아리 변론가들이 무슨 연설을 할 때 들머리에선 범정 변론처럼 삼엄하게 나가다가 말미에는 그만 추도사처럼 끝나는 반인반마처럼 괴상한 짜임새가 돼선 곤란하지 않나, 뭐 그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쉬어빠진 수사학자의 고리타분한 주장쯤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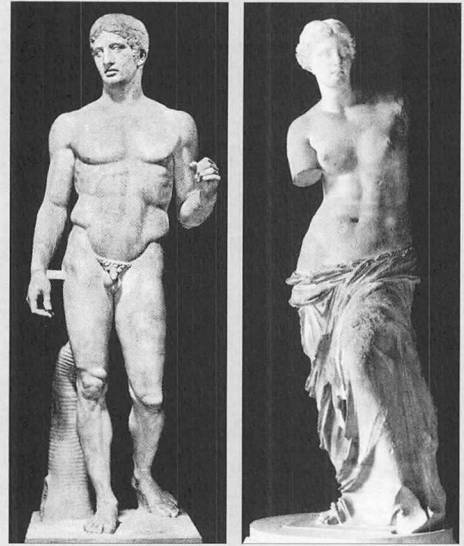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나 반인반어 네레이드 같은 괴물은 고대 부조나 조각에서 단골소재였을 뿐 아니라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 같은 내로라하는 르네상스의 천재들도 곧잘 인용하곤 했다. 이런 괴물들이 미술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건 인간 본성의 양면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처음 만들어냈다는 후마

니타스는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품성이란 뜻이었다고 한다. 동물이라고 다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자연의 욕망을 동물적이라고 치부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교양을 인간적이라고 단정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려내는 게 예술의 덕목이 된 것도 사실은 이런 사상을 깔고 있다.

몸을 붓으로 그리거나 끌로 쪼아내는 미술에서도 육신과 영혼의 재현에 차등을 두기 시작한다. 몸의 미술사가 처음에는 시대와 사상을 비추는 거울로 시작했다가 차츰 인간의 개개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최초의 몸다운 몸을 빚어낸 건 기원전 5세기 아르고스의 조각가 폴리클레토스였다. 옛 이집트 명장들이 몸의 형상을 재현하면서 저편에 있는 절대 가치의 스쳐지나는 그림자를 봤다면, 그리스 예술가는 피가 흐르고 사지가 꿈틀대는 이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

폴리클레토스의 조각은 인체 마디마디가 아주 작은 수의 분절들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그 수들은 서로 비례관계를 만들면서 숨을 쉰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다. 그렇다면 수의 뼈대와 비례의 힘살 위에는 자연관찰의 피부를 씌워서 완성한 조각이다. 인간과 우주를 만든 큰 원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하나의 생성원리로 몸을 해석했다.



폴리클레토스의 <큰 창을 든 사내>(기원전 5세기 중반, 나폴리 국립고고학 박물관)와 <밀로의 비너스>(바른 명칭은 '멜로스의 아프로디테', 기원전 2세기 중반, 파리 루브르 박물관).

비너스, 알몸의 관능이 빚어낸 신성한 유혹

그런데, <밀로의 비너스>는 좀 다르다. 누가 만든 건지도 안 밝혀진 작품이지만, 전형적인 헬레니즘 조형이라서 누구나 아는 작품이다. 대리석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렸던 때라서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따로 만들어 붙인 짜집기 조각이다. 여기에선 흘러내린 옷주름이 압권이다. 마치 소중한 물건의 포장을 단숨에 뜯어낼 때처럼 비너스의 알몸이 진행형으로 강조된 데다, 고랑 깊은 옷주름 덕분에 알몸이 더 눈부시게 연출됐다. 옛날에는 채색을 했을 테니까 가슴이랑 복부는 연한 붉은 색으로, 옷주름은 청색이나 자주색으로 복원하면 비너스 특유의 냉혹한 관능이 실감을 더한다. 게다가 다리를 좁게 오므려 선 자세 때문에 '신성한' 역삼각형 구성이 되고 말았다. 알몸의 관능이 빚어내는 신성한 유혹의 이슬배반 앞에서 숨이 꼭 막힐 지경이지만,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런 게 그냥 몸을 말하는 일상적인 미술의 어휘였을 뿐이다.

그래도 한가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고전기 조각가는 큰 창을 든 싸움꾼한테 우주의 신적 비례를 새겼는데, 헬레니즘 조각가는 왜 신성한 아름다움의 화신 비너스한테 등골이 저릿할 만큼 달디단 관능의 향기를 뿌려줬을까? ●